

과기부, 이공계 고급인력 고용 100억원 지원

과학기술부(장관 오명)는 이공계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게 연구현장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과기부는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신진연구자 연수지원 사업' 예산 100억원을 추가로 확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300명,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현장 연수자 550명 등 모두 850명의 미취업 석·박사를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8월 2일 밝혔다. 대학·연구기관에 연수하는 석·박사에게는 매달 각각 120만원과 150만원이 1년간 지원된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300명에게는 연간 석사 2200만원, 박사 2800만원이 지급된다.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에서, 신진연구자연수지원사업은 한국과학재단(www.kosef.re.kr)에서 8월 20일까지 신청접수하면 된다.

정통부, IT중소·벤처기업과 매주 간담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가 IT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정통부는 IT중소·벤처기업의 난관 해소와 활성화를 위해 장·차관과 실·국장, 담당과장 및 자문관 등이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활성화프로그램(SMERP)' 간담회를 매주 갖는다고 8월 3일 밝혔다.

정통부는 간담회를 통해 100만개 중소기업 정보화, 해외진출 지원 등 IT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선정한 10개 중점 과제를 업계와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통부가 선정한 10개 중점 과제는 100만개 중소기업 정보화, 해외진출 지원 외에도 ▲전문협의회 구성·운영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공유지원서비스 발굴 및 지원 ▲경영컨설팅 활성화 ▲유비쿼터스IT벨트(UIB) 사업 추진 ▲IT기술이전 및 평가센터 설립·운영 ▲중소기업 인력 불균형 조정지원 ▲소프트웨어 활성화 등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간담회에 나온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정부 정책에 지속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영해 정책의 현실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청, 中 수출 돕는 '신용장펀드' 100억원 조성 계획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제품 선적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L/C)펀드'가 나온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수출기업의 선하증권(BL)을 담보로 발행한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엑스포트파이낸싱펀드'(가칭)라는 특수목적 펀드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해운회사가 운송화물에 대해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담보로 수출업체가 발행한 CB를 인수한 뒤 조합원들에게 파는 형태로 운용된다. 수출업체는 이를 통해 제품 선적과 동시에 선수금을 받아 추가 주문량 생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펀드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는 것은 물론, 수출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등록)될 경우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투자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이번 펀드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는 미국 등에 위치한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중기청은 이달 중 이 펀드의 운용사 신청공고를 내고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펀드 결성은 11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정부의 펀드참여 규모는 펀드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 5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